

# 누가 수학책이 재미없다고 했는가?

이야기 담은 대중수학서 큰 인기

최근 대중수학서의 경향을 보면, 대중적인 이야기가 담긴 주제라면 수학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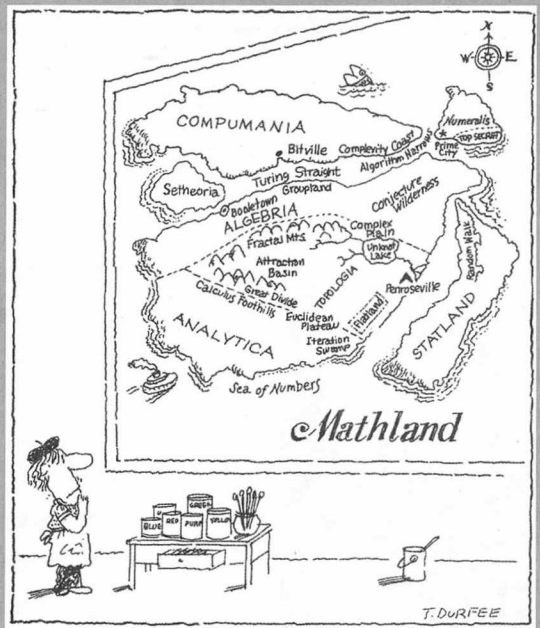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라는 첫 대중과학서를 쓰려고 하자, 편집자는 “수식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독자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출판공식을 말했다. 호킹은 이 공식을 잘 이해해 어쩔 수 없이 쓴  $E=MC^2$  외에 수식을 뺐다. 그래서인지 스티븐 호킹의 책은 2백만부 넘게 팔렸다. 그 편집자의 공식 덕분이라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이야기를 담은 수학서 늘어

호킹의 예는 출판이 수식을 얼마나 꺼리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다. 생물학이 진화라는 이야기를, 천문학이 별자리라는 이야기를, 물리학이 시공간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가졌다면, 수학은 수학사 외엔 이야기가 없는 분야다. 따라서 일반독자들은 대중수학서라면 논리나 퍼즐을 통해 수학의 방법론을 익히는, 학습서의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 과학분야 베스트셀러를 보면 대중수학서의 강세가 보인다. 7월말, 교보문고가 집계한 과학부분 베스트셀러 전체 10권 중에서 수학서가 7권을 차지한다. 대중수학서가 학습서에서 교양서로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조짐은 수학사에서 이야기를 끌어낸 책이 나오면서부터다. 예컨대 원주율을 알아내려는 인류의 지난한 노력을 담은 《 $\pi$ 의 역사》나 페르마가 남긴 난제를 둘러싼 드라마를 소개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등. 이 책들은 원주율과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중학교 수학 수준이면서도 수학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선택해 대중수학서의 승패가 결국 주제의 문제임을 증명했다. 대중수학서 대부분이 정수론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도 가장 쉬우면서도 수학의 본질을 밝힐 수 있는 분야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정수론을 둘러싼 수학의 역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수학사 역시 인간의 역사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다. 특히 수학자 중에는 괴짜가 적지 않아 사람을 통해 수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직업도 가족도 없이 평생 수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산 헝가리 수학자 폴 에르디시의 삶을 다룬 《화성에서 온 수학자》나 위대한 수학천재의 삶을 다룬 《가우스》, 스물네살의 젊은 나이에 ‘수학체계의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한 괴델을 다룬 《괴델의 삶》 등이 이 종류. 가끔 고난도의 수학적 개념도 나오지만, 주제는 인간



수학의 세계는 복잡하지만, 그 곳에도 사람 사는 이야기는 있다.

에 맞춰지기 때문에 골머리 썩지 않고도 쉽게 읽을 수 있다.

## 수학의 바깥에서 수학 설명

궁극적으로 대중수학서는 수학의 바깥으로 나와 수학을 설명한다. 현대수학의 영역이 교과서의 영역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야기로 수학사를 재구성, 혹은 설명할 수 있고(《앵무새의 정리》, 《수학이 수군수군》, 《수학귀신》), 문화사적으로 수학을 들여다볼 수도 있으며(《무한, 그리고 그 너머》), 자연을 통해 수학을 배울 수도 있다(《자연의 수학적 본성》). 또 더 나아가서는 가능한 모든 글의 형태로 수학의 아름다움을 익힐 수도 있다(《괴델, 에셔, 바흐》).

수학적 주제에 새롭게 접근하는 대중수학서는 결국 단순히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서가 환영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예컨대  $\sqrt{2}$ 는 중학교 시절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숫자다. 피타고라스도 감추고 싶어하던 숫자니 당연하다. 하지만 흔히 쓰는 A4용지의 가로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세로변의 길이는  $\sqrt{2}$ 가 된다. 한조각의 낭비도 없이 같은 비율로 전지를 자르기 위해 식을 세우면  $1:\sqrt{2}$ 가 나온다.  $\sqrt{2}$ 는 바로 국판의 형태를 만든 숫자다.

— 김연수 기자

##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담은 책들〉

제목	저·역자	출판사
앵무새의 정리 (1~3)	드니 게디 지음/문선영 옮김	글리오
괴델, 에셔, 바흐 (1·2)	더글러스 호프스태터 지음/박여성 옮김	까치
화성에서 온 수학자	브루스 웨스터 지음/박영훈 옮김	지호
현대 수학의 여행자	이비스 피터슨 지음/김인수·주형관 옮김	사이언스북스
수학귀신	H. 엔첸스베르거 지음/고영아 옮김	비룡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사이먼싱 지음/박철 옮김	영림카디널
황제의 새마을 (1·2)	로저 펜로즈지음/박승수 옮김	이화여대출판부
무한, 그리고그너머	엘리 마오 지음/전대호 옮김	사이언스북스
수학이 수군수군	샤르탄 포스 키트 지음/유광태 옮김	김영사
자연의 수학적 본성	이언 스투어트 지음/김동광 옮김	동아
수학·양식의 과학	케이스 데블린 지음/허민·오혜영 옮김	경문사